

【신 극장을 문화예술의 발신 거점으로!】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오모테초 센니치마에 지역에 정비 예정인 「오카야마 예술 창조 극장 (가칭)」에 대해 지난 10월 24일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따른 권리변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것으로 오카야마시는 예정했던 지역의 취득 권리를 얻고 이후 2022년 가을 경의 오픈을 향해 사업이 크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극장은 지상 6층, 지하 2층 바닥면적 약 19,000 m²로 최대 특징은 대형 홀(약 1,750 석)과 중간 홀(약 800 석)외에 대형 스튜디오 및 대중소 연습실, 공방, 갤러리 등을 병설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에 충분하지 못했던 “ 창조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에 충실을 기했습니다.

기본 컨셉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매료」

대, 중홀의 무대를 넓게하고 무대의 기능을 높이는 것으로 지금까지 하기 어려웠던 오페라 등의 대규모 무대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대 주변에 다수의 대기실을 배치, 무대와 같은 높이의 반입구를 마련하는 등 극장 이용자에게 이용하기 쉬운 무대기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임」

북쪽의 사업 동과 남쪽의 홀 동을 큰 지붕으로 연결하는 거대한 아치형

공간(활기 공간)이나 오픈 로비, 갤러리등은 마련해 공연이 없을 때에도 누구나 부담없이 찾아와 한손에 커피를 들고 쉴 수 있는 활기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만듬」

「대형 스튜디오」는 대형 홀 주무대의 전면 사용에 해당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실전에 가까운 환경에서 연습이나 리허설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 300 명까지 공연을 할 수 있어 연기자의 가까운 곳에서 일체감을 느끼는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 연습실」은 중간 홀 주무대의 전면사용에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고 옥상 정원과 일체적인 이용도 가능합니다. 자연의 빛이 들어오는 개방공간에서 연습뿐만 아니라 차광하여 공연과 리셉션을 할 수 있습니다.

「중, 소 연습실」은 다양한 크기의 15 개의 연습실을 마련해 공연 전의 연습이나 리허설, 창조활동, 취미 모임, 연수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신극장 특유의 기능을 갖추며 지역 취득비는 당초 예정을 크게 웃도는 약 235 억엔이 될 전망이지만 합병 추진 채권등 유리한 재원을 활용하는 등으로 재정적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 월 부터 해체 공사및 문화재 조사에 들어가 내년 가을 경 건설 공사에 착수 할 예정이며 2021 년 말에 완성, 2022 년 가을 무렵의 오픈을 향해 순조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설이 새롭게 생기는 것으로 오모테초 근처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 활기를 띄고 다양한 연극과 음악이 오카야마 땅에 싹트기를 기대합니다만, 이를 위해 하드작업을 정비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문화 예술을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과 시민의 창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각종 단체, 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소프트웨어 사업의 충실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오카야마 특유의 문화예술을 창출해 국내외에 발신하는 중서지방을 대표하는 「창조형 극장」을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후도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시설 이미지 도는 하기 어드레스(전부 소문자 입력)으로 참고하십시오.

<http://www.city.okayama.jp/contents/000350383.pdf>